미국
콘텐츠 산업동향

CONTENTS INDUSTRY TREND OF **USA**

한국콘텐츠진흥원
미국사무소

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

주간 심층이슈

『한국영화 인재의 할리우드 진출현황』

작성취지

- 한국감독들의 할리우드 진출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영화평, 흥행성적 등의 영화정보를 정리해 보고, 각 영화의 성취한 바와 아쉬운 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함

작성순서

- 들어가기
- 김지운 감독의 <라스트 스탠드>
- 박찬욱 감독의 <스토커>
- 봉준호 감독의 <설국열차>
- 정리 및 시사점

1. 들어가기

[출처: 와인스타인 컴퍼니]

2012년 한국영화계

- 2012년은 한국영화와 한국영화계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뜻 깊은 한해였음
- 한국영화 전체 관객 수 1억 명 돌파는 양적 성장을 의미하고, 또한 영화 상영을 친근한 문화생활로 받아들인 질적 성장을 의미하기도 할 것임
- 김기덕 감독의 <피에타>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밖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인식을 높인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성과임
- 비록 <피에타>가 이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, 세상에 다양한 영화가 존재하며 그 중 한국영화가 상당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음을 세계 영화시장에 알리게 되었음

2013년 상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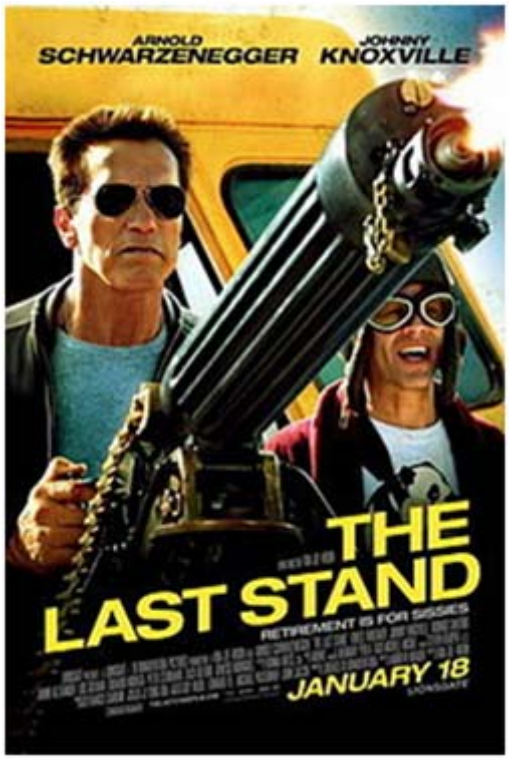
- 2013년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도 한국영화와 한국영화계에 대한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음
- 2013년 새해와 함께 개봉한 한국영화 <7번방의 선물>은 <광해, 왕이 된 남자>, <괴물>, <도둑들>, <실미도>, <왕의 남자>, <태극기 휘날리며>, <해운대>에 이어 한국영화 사상 여덟 번째 1,000만 관객을 돌파했음
- 이는 기존의 1,000만 관객동원 작품들이 예술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지닌 이른바 시상식용 영화여서 가족관객이나 오락영화 관객의 티켓파워까지 동원하지 못했던 약점을 가졌던 것과 다르게 작품성보다는 대중성에 중점을 둔 영화가 1,000만 관객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, 사실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조짐은 확인되었음
- 2012년 1,000만 관객을 동원한 두 영화 <도둑들>과 <광해>는 영화의 완성도에서도 부족하지는 않았지만 대중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으며, <과속 스캔들>, <써니>, <헬로우 고스트> 등 가벼운 오락물 위주의 영화들이 고른 연령대의 관객을 동원하였던 성향이 점점 두드러졌음
- 오멸 감독의 <지슬>은 제29회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으며, 한국사의 고유정서를 담은 영화에 세계적인 영화제가 호응을 보내온 특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

- 또한 2013년은 한국배우들의 할리우드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음
- 이전까지 전력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, <지.아이.조 2>, <레드 2> 등 <지.아이.조> 이후 안정적으로 출연분량을 늘려가고 있는 배우 이병헌과 <클라우드 아틀라스>에 캐스팅된 배두나 등이 그러함

○ 한국감독의 할리우드 진출

-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3년 한국영화계가 주목하고 기다렸을 소식은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세 감독인 김지운, 박찬욱, 봉준호가 모두 할리우드에 진출하여 연출한 영화 3편의 개봉일 것임
- 사실 이 세 감독에 대한 할리우드의 구애는 6년 전부터 시작되었음
- <장화, 홍련>, <괴물>, <올드보이>를 출품한 해외영화제에서 이들 감독들과 할리우드 에이전시와의 만남이 시작되었고, 그 뒤의 결실은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가시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음
- 현재 시점에서 이미 김지운 감독의 <라스트 스탠드>와 박찬욱 감독의 <스토커>는 한국과 미국에서 개봉했음
- 봉준호 감독의 <설국열차>는 개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나, 캐릭터별 티저 포스터가 발표되는 등 개봉 전 관심을 모으기 위한 마케팅이 계속되고 있음
- 이 시점에서 이미 개봉한 두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영화평, 흥행성적 등의 영화정보를 정리해 보고, 각 영화의 성취한 바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앞으로 유사한 행보를 준비하는 한국영화인들에게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되어 이 리포트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함
- 리포트에서 사용된 영화정보는 IMDb, Rotten Tomatoes 및 Box Office Mojo의 정보를 취합하였음(그 외 출처는 각주 표시)

2. 김지운 감독의 <라스트 스탠드>



[출처: 라이온스 게이트]

○ 영화정보

- 감독: 김지운
- 제작: 로렌조 디 보나벤츄라
- 각본: 앤드류 나우어
- 촬영: 김지용
- 음악: 모그
- 출연: 아놀드 슈워제네거, 포레스트 휘태커, 조니 녹스빌, 로드리고 산토로
-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할리우드 복귀작으로, 작은 소도시의 보안관이 소도시를 지나 멕시코로 달아나려는 마약상을 막아내는 액션영화
- 제작비는 약 4,500만 달러

- 라이온스 게이트에서 배급
- 미국 내에서 1,205만 달러 흥행수입(전체의 33.5%), 미국 밖의 시장에서 2,396만 달러 흥행수입(전체의 6.5%)을 올렸음

○ 미디어 리액션

- <라스트 스탠드>의 평점은 로튼토마토의 평론가 전체에서 신선도 59%(높을수록 영화평이 우호적임), 주요 평론가 신선도는 40%, 관객 신선도는 63%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음
- IMDb(인터넷 영화 데이터베이스)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.7임
- 김지운 감독의 연출에 대한 내용을 리뷰에서 옮겨보면 대부분 부정적임
- CNN은 "…이런 것들은 다른 B급 영화에서 보아온 전형으로 보는 것이 최대한이다. 참신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…" 고 평가했음
- The Hollywood Reporter는 "…감독 김지운의 시각적 접근은 어떤 긴장도 만들어내지 못 했다. 계속되는 액션장면을 조각조각 모은 장면들이 항상 자연스러운 우아함이나 표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… 현실적인 부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상한 컨셉이다…" 라고 함
- The Wrap은 "한국의 유명한 감독 김지운의 지휘 아래에서, 사실 쓰레기 B급 영화인 이 영화는 더 괜찮아질 수도 있었다. <라스트 스탠드>는 엉망이다…" 라고 전함
- New York Daily News는 "각본은 엉망이다. 뻔한 클리셰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으며 한물간 농담과 싸구려 결말이 기다린다. 영화의 유일한 미덕은, 그러나, 열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" 라고 하였음

ㅇ 성취 및 아쉬운 점

- 할리우드의 관점에서 <라스트 스탠드>에서 돋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복귀였음
- 영화평을 읽어보면 배우로서 그가 건재함에 대해 호의적인 평이 대부분이지만, 단선적인 영화 줄거리와 흔한 액션영화라는 장르의 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언급이 많았음
- 하지만 첫 미국영화에 도전한 김지운 감독에 대해서는 열정과 스타일이 있는 감독이라는 호평이 많았음
- 영화평론가 김봉석은 김지운 감독의 <라스트 스탠드>는 흥행에서는 참패했지만, 김지운은 할리우드 시스템 안에서 액션영화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음
- 새로운 제작시스템과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성취했기에 할리우드 안에서 다음 작품으로의 기대가 가능함
- <SBS E!>의 김지혜 기자는 “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 소재 자체의 매력이나 장르적 쾌감이 돋보이는 영화는 아니지만, 김지운 감독은 변화의 폭이 넓지 않은 스토리에 자신의 색깔을 넣고자 고군분투했으며, 액션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우드에서 인상적인 액션신으로 감독 자신의 인장을 찍었다”고 김지운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에 대한 성취를 정리했음

3. 박찬욱 감독의 <스토커>

[출처: 폭스 서치라이트]

○ 영화정보

- 감독: 박찬욱
- 제작: 리들리 스콧, 토니 스콧
- 각본: 웬트워스 밀러
- 촬영: 정정훈
- 음악: 클린트 맨셀
- 출연: 미아 와시코우스카, 매튜 구드, 니콜 키드먼, 더모트 멀로니
- <프리즌 브레이크>의 주인공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배우 웬트워스 밀러의 각본으로 만들어진 영화이며, 끔찍한 차 사고로 아빠를 잃은 소녀가 갑자기 그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 엄마와 아빠의 동생에 대해 가지는 의심을 그려낸 영화

- 제작비는 1,200만 달러임
- 폭스 서치라이트에서 배급
- 미국 내에서 흥행수입은 16만 달러(전체 수입의 27.9%)를 기록했고 미국 외 시장에서는 437만 달러(전체 수입의 72.1%)를 기록했음
- 미국을 포함해 모두 38개국에서 개봉했음

○ 미디어 리액션

- <스토커>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66%를 기록했으며, 주요 평론가들의 점수만 모으면 62%로 낮으며, 관객 신선도는 74%이고, MDB 평점은 7.5점을 기록했음
- 로튼토마토의 주요 리뷰를 정리하면, 박찬욱 감독이 쓰지 않은 각본이 그의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던 극적인 중량감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임
- 발표된 리뷰 중에서 박찬욱 감독에 대해 언급된 부분을 찾아보면 연출 스타일에 대해서나 미학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Miami Herald는 "…박찬욱 감독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지만 놀라운 이미지를 제공한다. 소녀의 다리에서 휘날리는 치마자락이나 여자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눕는 풀로 바뀌고, 붉은 벽 위로 붉은 피가 튀기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. 중얼거리는 듯한 영화의 나머지 부분이 그러하듯 영화는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래 동안 남아있을 것" 이라고 호평했음
- Washington Post는 "웬트워스 밀러가 쓴 각본을 토대로 박찬욱 감독은 그다지 공포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바꾸려고 부단한 노력을 펼친다. 타인의 각본을 토대로 영화를 만들려는 박찬욱 감독의 첫 번째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. 이미지는 공포스럽지만, 사건은 그렇지 않다" 라고 평가했음
- The Atlantic은 "<스토커>에서 박찬욱 감독은 섬뜩한, 악의를 가진 동시에 우아한 네오-고딕 스릴러를 만들어 냈다. 캠피적 이미지에 가까운 장면들이 보인다. 피아노 듀엣으로 유혹하는 장면이 그렇다. 박찬욱은 패러디로 기만하지 않는다. <다크 섀도우>에서 초능력이나 늑대인간이 사라지고 남은 것이 이 영화이다. 뿌리까지 깊숙히 썩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고 씻을 수 없는 과거의 죄가 반복되고 다시 한 번 죄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.

그와 항상 함께하는 촬영감독 정정훈과 함께 박찬욱은 공포스러운 디테일에 대한 그의 시각을 드러낸다‥” 고 말함

○ 성취 및 아쉬운 점

- 2013년은 박찬욱 감독에게도 중요한 한해이며, <스토커>의 개봉도 그러하지만, <올드보이>가 스파이크 리 감독의 리메이크로 개봉되며, 봉준호 감독의 <설국열차>의 제작자로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임
- 김봉석 영화평론가는 박찬욱 감독의 <스토커>에 대해 “박찬욱 식 영화이지만 결코 대중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며, 소수관객, 박찬욱의 영화 세계를 좋아하는 관객만이 지속해서 즐길 수 있는 영화라고, 할리우드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중이 흥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” 라고 지적했음
- 그렇기에 박찬욱 감독의 흥행성적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, 다시 말하면 박찬욱의 영화를 보는 미국의 관객수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불투명하다는 의미임

4. 봉준호 감독의 <설국열차>

[출처: 와인스타인 컴퍼니]

○ 영화정보

- 감독: 봉준호
- 제작: 박찬욱, 이태훈, 박태준, 최두호, 매튜 스틸먼
- 각본: 봉준호, 켈리 마스터슨
- 촬영: 홍경표
- 음악: 마르코 벨트라미
- 출연: 크리스 에반스, 송강호, 제이미 밸, 알리슨 필, 존 허트, 틸다 스윈튼, 옥타비아 스펜서, 에드 해리스, 고아성
- 프랑스의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하는 작품으로, 기후가 극한으로 추워져 얼음을 부수며 달리는 설국열차에서 최후의 생존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
- 계급에 따라 머리칸에서부터 꼬리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열차 안에서 일

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, 한국배우 송강호와 고아성이 열차의 자물쇠 전문가와 열차에서 태어난 아이 역할을 맡아서 화제가 되었음

- 와인스타인 컴퍼니 배급

○ 미디어 리액션

-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현장 사진 몇 장과 캐릭터별 티저 포스터가 다이지만 인터넷 영화정보 관련 사이트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
- 촬영은 2012년 4월 16일 시작되었으며 체코공화국의 프라하에서 전체 로케이션으로 촬영되었고, 2012년 7월 14일 촬영을 마무리했고 한국에서 후반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음

5. 정리 및 시사점

- “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” 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문화교류가 활발한 때에는 원래 영화가 본 나라에서 얻었던 인기나 문화의 질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거나 변질되는 경우가 많음
- 사실 김지운, 박찬욱 두 감독이 만든 영화들은 한국에서 큰 기대와 사랑을 받아 왔음
- 하지만 할리우드에서 두 감독이 만든 신작들은 모두 흥행이라는 기준에서 크게 부족한 결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감독의 역량이 부족하다거나 영화가 수작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닐 것임
- 아마 두 감독이 최선을 다 했음에도 여전히 문화차이가 존재하며, 할리우드와 한국 영화 시장이 동일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임
- 반면 이들이 한국에서 인정받는 감독이라고 해서 할리우드에서도 흥행이 보장되는 감독이라고 미리 넘겨 짚거나 흥행을 섣부르게 예상해서도 안 될 것임
- 그럼에도 이들 두 감독의 다음 행보와, 아직 개봉하지 않은 봉준호 감독의 <설국열차>에 관심을 두고 기대를 계속해서 가지는 이유는 이 같은 할리우드 진출의 경험들이 다음 세대의 감독들에게 살아있는 지혜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박스오피스 톱에 오르는 영화의 엔딩 타이틀에 한국감독의 이름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임
- 특히 봉준호 감독의 <설국열차>는 순수 할리우드 자본이 아니라는 점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여러 번 수상한 적이 있는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배급하기에 기대가 높음
- 할리우드에서만 통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거란 기대가 있고, 할리우드의 취향을 아는 배급사가 함께 한다는 것도 든든한 기대가 될 것임